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북부신문 10면

민원처리특위, 장애인단체 연합회 급식봉사 및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위원 김영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번1동에 있는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강북구 덕릉로 126)를 방문해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오후 1시에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급식봉사는 평소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박문수 위원장과 김영준 의원이 구비 예산을 지원 받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장애인

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식당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두 의원은 매일 점심준비에 고생하는 주방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오후 1시에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식당에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구청 생활보장과장, 장

애인복지팀장, 담당직원과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원 및 장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들로부터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과 평소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에 대해 경청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은 식당 장소가 협소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점심식사 하기가 불편하니 넓은 장소로 식당

을 옮겨달라고 건의했으며, 급식의 질도 좀 더 좋아지기를 희망했다. 또 휠체어 수리 및 전지 교환 지원, 연합회 행정인력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면서 “협소한 식당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해 2015년 내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